



“반갑다 더워야” 3일 나주 중흥 골드스파 야외 물놀이 시설에서 연인과 가족들이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일찍 다가온 더위를 즐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주말·휴일 화재 잇따라 광주·전남 3명 숨져

5월 첫째 주 주말과 휴일인 2일과 3일 광주·전남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 3명이 숨졌다.

3일 새벽 2시22분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 중고차 매매단지 내 샌드위치 패널로 된 2층짜리 차량정비소에서 불이나 소방서출산 4천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4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2층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최모(52)씨 등 2명이 숨졌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새벽 0시20분께 무안군 해제면 A노래방에서 불이 나 소방서출산 56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노래방엔 손님 10여 명이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지난 2일 오후 2시께엔 북구 두암동 이모(49)씨의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2층에 살던 이씨의 어머니 김모(83)씨가 연기에 질식사 숨졌다.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9분 해질 19시 20분 달돋이 14시 32분 달질 02시 36분

햇살로 여는 월요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며 대기가 건조하겠다.

광주	구름 조금	12/25℃
목포	구름 조금	12/22℃
여수	구름 조금	13/19℃
완도	흐린뒤 맑음	13/22℃
구례	구름 조금	10/15℃
해남	구름 조금	11/22℃
장흥	구름 조금	11/23℃
고흥	구름 조금	10/22℃
순천	구름 조금	12/23℃
영광	구름 조금	9/22℃
진도	흐린뒤 맑음	11/22℃
전주	구름 조금	10/24℃
남원	구름 조금	8/26℃
속산도	구름 조금	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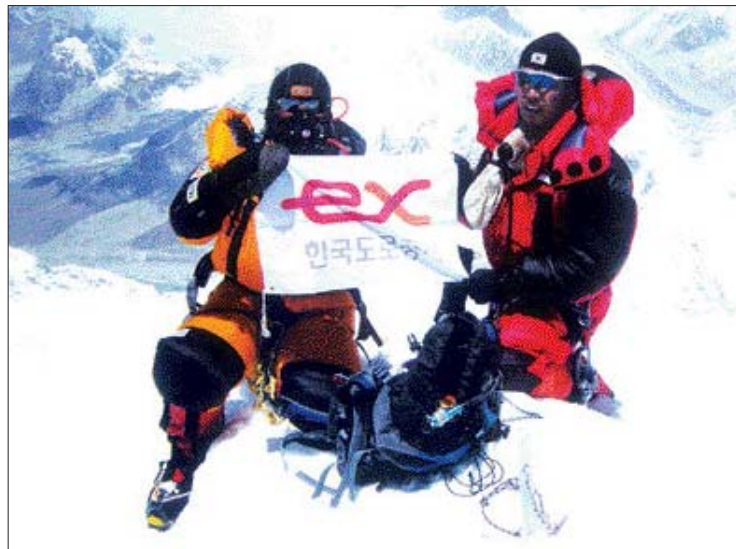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목포 10:18	03:08
서해 북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22:54	15:55
남해 서부 앞바다	남~북서	1.0~1.5m	여수 05:28	11:45
남해 동부 앞바다	남~북서	1.0~1.5m	18:05	--:--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0/27	10/29	11/30	12/30	13/29	14/27

8,167m ‘죽음의 지대’서 꽃 핀 우정

자일파트너 김홍빈·김미곤씨 나란히
세계 제7위 봉 다올라기리 정상 밟아



지난 2007년 5월 16일 ‘희망을 위한 2007 한국도로공사 에베레스트·로체 원정대’ 대원으로 참여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850m) 정상에 함께 선 김홍빈(왼쪽)·김미곤씨.

‘얼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46·네과 테트스팀·송원대산악회 OB) 대장과 그의 오랜 자일파트너인 김미곤(37·버그하우스·한국도로공사 산악팀)씨가 지난 1일 오후 나란히 세계 제7위 봉인 다올라기리(8,167m) 정상을 밟았다.

광주일보 후원으로 새해 벽두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4,897m)를 등정, 양손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 안등의 쾌거를 이뤄낸 김 대장은 이로써 그의 새로운 목표인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2009 안나푸르나·다올라기리원정대(단장 임정웅)에 따르면 두 대원은 지난달 30일 밤 10시(현지시각) 다올라기리 북동릉 노멀루트에 위치한 제3캠프(7,400m)를 출발해 다음날 오후 5시40분(한국시각 오후 8시55분) 김미곤씨가 먼저 정상에 섰다. 김홍빈 대장은 오후 6시30분 정상을 밟았다. 거센 눈보라와 강풍속에 고정 로프도 설치하지 않아 정상 공격에만 20시간 안팎이 걸린 악전고투였다. 이들은 3일 베이스캠프(4,700m)로 무사히 귀환했다.

이번 등정으로 김홍빈 대장은 가셔브롬 II와 시샤광마 남벽(이상 2006년), 에베레스트(2007년), 마칼루(2008년)에 이어 히말라야 8,000m급 5개 봉을 올랐다. 2007년 국내에선 처음으로 에베레스트-로체봉을 연속 등정한 김미곤씨는 초오유(2000년), 마칼루(2001년), 가셔브롬 II(2006년)를 포함 6개짜다. 두 사람은 이 가운데 가셔브롬 II와 에베레스트를 함께 올랐으며 이번 다올라기리가 세 번째 ‘동행’이다. 김미곤씨는 특히 히말라야 등반 때마다 앞장서서 로프를 깔아주고 직벽 구간에서는 위에서 끌어주는 등 김홍빈 대장의 ‘손’이자 든든한 자일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이번 원정에서도 김미곤씨는 김홍빈 대장과는 다른 팀인 전북산악연맹의 ‘2009한국안나푸르나·다올라기리 원정대’ 등반대장으로 참여했으나 현지에서 만나 호흡을 함께 맞췄다.

김 대장 등은 이번 주중 인근의 안나푸르나(8,091m) 베이스캠프로 이동해 2개 봉 연속 등정에 도전할 예정이다. 네팔 히말라야산맥 중 북부에 위치한 안나푸르나와 다올라기리는 고대 티베트의 교통로였던 칼리간다키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김 대장은 지난 2007년 다올라기리에 도전한 바 있으나 정상을 밟지는 못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4일 출국해 네팔 카트만두를 거쳐 지난달 9일 베이스캠프에 도착했으나 폭설과 급변하는 기상 때문에 공격 캠프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같은 날 전북연맹원정대 고우석(47) 원정대장도 이들과 함께 다올라기리를 등정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여성 산악인 고미영씨
히말라야 마칼루 등정**

여성산악인 고미영(41·코오롱스포츠)씨가 1일(한국시각) 오후 세계 5위봉인 히말라야 마칼루봉(8,463m)을 등정했다.

대한산악연맹에 따르면 고씨는 이로써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중 8개를 오르는데 성공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발과장 600m 밖 뱀장어 폐사 배상하라”

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순천 양식장에 3억여원

발과 현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양식장이라도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3일 고속도로 터널공사의 발과 작업에서 발생한 진동 때문에 키우던 뱀장어가 죽었다는 제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업체에 3억1천600여만 원을 배

상하라고 결론냈다.

분쟁위원회에 따르면 순천시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던 조모씨는 지난해 5월 이후 순천 벌교5터널과 별량터널의 발과공사 때문에 운영하던 양어장의 뱀장어 성어 5만 여 마리와 치어 20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며 16억 여 원을 물어내라고 재정신청을 냈었다.

이에 따라 분쟁위원회 측은 실제 진동 측정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수중소음이 140~150dB/μpa 정도, 평상시 수조 내의 수중소음 90dB/μpa 보다 50~60dB/μpa 높고, 이는 뱀장어의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줘 일평균 폐사량이 자연폐사를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발과 작업장이 양어장에서 600~700m 떨어져 있어 진동 피해가 예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양어장이 공장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조사 전에는 실제로 피해가 있었을까 의심했다”며 “하지만 양반을 발과할 때 생기는 진동이 어류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n@kwangju.co.kr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 50대 교사 숨져

광양 한국향만물류고교
시범학교 협의 중 쓰러져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개교 준비에 헌신하던 한 교사가 회의 도중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3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국향만물류고등학교 김종근(51·사진)교사가 학교 관사에서 연구시범학교 협의회 도중 쓰러져 병

위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 숨졌다.

김 교사는 지난 3월 초 광양에 있는 이 학교에 향만물류과 부장으로 부임해 내년 마이스터고 개교 작업을 위해 업무에 열중해 왔다.

학교 측에 따르면 김 교사는 지난 2일 이 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뒤 신규 교육과정 편성, 교재개발, 타 학교 및 기업 탐방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 달 22~23일에는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마이스터고 지정학교 회의에 참석하고, 새벽에 광양에 도착해 다음날 교과부 실사단 안내 등을 맡는 등 강행군을 해왔다.

향만물류고 조영환 교감은 “김 교사는 학교수업 외에도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는 내년 3월 마이스터고로 개교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신입생을 선발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의 창간 50주년 기념 특별기획

우리나라 다시보기 제주도 재발견

세계 자연 유산에 지정된 아름다운 섬 제주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곳!
최대한 흥미로운 신세계 탐험을 도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항공+항공 249,000원 **선박+선박 128,000원**

5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일점 광주출발 도/착기준

- 항공: 제주항공, 제주항공, 제주항공
- 선박: 제주항공, 제주항공, 제주항공

문의처: 제주항공 고객센터 02-2222-2222